불교공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현불논단



명법 스님
해인사 국일암 감원

10월부터 서울 강의를 다시 시작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면강의를 중단한지 5년만이다. 대면강의의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는 것이다. 비대면강의가 아무리 편해도 대면강의의 생동감과 맞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런 기대감에 살짝 흥분된 마음으로 아침 일찍 해인사를 출발했다.

사찰에서 하는 불교대학 강의는 노년층 수강생이 대다수였다. 인문학 단체의 강의는 그보다 연령대가 낮아 40~50대가 많이 수강하는데 이번엔 역대 최연소 수강생이 참여했다. 오래전부터 내 강의를 수강했던 여교사의 중3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왔다. 불교공부, 그것도 어렵기로 정평난 논서를 공부하겠다고!

10여 년 전, 그 어머니가 내 강의를 들으러 왔다. 세 남매를 키우며 젊은 부부는 인문학강의를 들으러 다녔는데, 아이들을 돌봐야하니 한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번갈아가며 부부는 열심히 공부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사는 곳이 남양주라는 사실이다. 오는 시간만 2시간 이상 걸린다. 승용차로 역까지 와서 기차와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야 하는데, 십년 전에는 승용차가 없어 역까지 버스를 타고가야 했으니 집에 도착하면 한밤중이고, 막차를 놓치면 택시를 잡아타기 일쑤였다.

그들의 보금자리에 초대를 받아 수강생들과

10월부터 시작한 서울 강의에
중3 여학생, 엄마 손 잡고 참석
공부하기 좋은 날은 바로 지금

함께 놀러간 날, 학원도 과외도 없는 시골에서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그림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준 놀이감을 갖고 노는 게 전부였던 세 아이를 만났다. 천진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어 내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나이 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바쁘게 쫓아다니느라 지쳐버린 요즘 아이들에겐 삶이 뭔지, 우주가 뭔지 하는 고민이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되었지만 말이다.

강의가 끝난 후 아이에게 강의가 어렵지 않았냐 물으니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웃기만 하고 엄마가 대신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전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몰라서 재미없거나 관심 없어지는 것보다 몰라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은가. 어른이 되었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도 있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치면 모르는 것이 있지 않은가. 아이에겐 그 호기심이 그의 삶을 열어갈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 믿기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도 모르고, 막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도 모르는 것, 그것을 알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도 갔고 그들도 왔다. 내 강의가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엄밀하게 만들고 더 굳건히 이어가게 할 수 있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텐데, 내심 기대와 다짐이 엇갈린다.

불자들 중에도 불교공부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좋은 줄 알지만, 알고 싶긴 하지만,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가 많다. 어제 우연히 절을 찾았던 중년부부도 그랬다. 명상도 하고 불교공부도 시작해보라고 권하니 조금 더 고민해보겠단다. 공부하기 좋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노인도, 아이도 마음먹는 바로 그 때가 불교공부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일뿐.

"출생을 묻지 말고, 행동을 보라"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요사이 불교계는 명상이 일상에 자리를 잡아가고 불자들의 결집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해가는 불교의 흐름 속에 장애불자들이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했다 해도 아직도 많은 불자가 신체적 장애나 생활고 등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대개 '전생의 업'이라고 여긴다.

며칠 전 경전에 있는 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읽은 한 분에게 질문을 받았다.

〈대반열반경〉의 '마음으로 지은 가지각색의 업으로 인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온다'는 내용과 〈대보적경〉의 '누구든 부처님의 법을 부정하거나 법을 배우는 데 방해를 하거나 전생에 악업을 짓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가 생긴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경전에 대하여 깊은 지식이 없는 나는 답을 하는데 망설였다. 경전의 내용을 경구 한 구절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라면서 우리가 함께 짓게 되는 공업에 대해서도 말했다. 부처님은 전생의 업이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견해와 동시에 과거의 업이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둘 다 갖지 않으셨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가는 우리 사회는 개

신체장애 등 '전생의 업'으로 여겨
경전 구절 아닌 전체 맥락 이해를
아나율 역시 '시각장애인' 이었다

인의 업보다는 다함께 짓는 공업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초월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살아간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럴 것이다.

장애의 원인의 90% 이상이 후천적인 것에 있다는 통계에서도 장애를 개인의 운명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을 만드는 원인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것이 많다.

불교시간론을 저술한 일본학자 사사키 겐쥰은 '업의 필연성은 외면적인 것, 즉 신체, 남녀의 구별과 같은 외적 생물학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업의 작용이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처님도 '출생을 묻지 말고, 단지 행위를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불교는 인간적 삶에 관한 종교이기에 내적인 의지를 중요시해야 할 것 같다.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아나율은 시각장애인이다. 부처님은 아나율을 천안(天眼) 제일이라고 하여 시각장애로 혜안(慧眼)을 얻었다고 칭찬하셨다. 아나율의 실명 원인은 전생의 업 때문이 아니라 잠을 자지 않으며 밤낮없이 수행정진한 데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나율에게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는 기적 대신 앞을 못 보는 아나율을 위해 바늘귀를 끼워주셨다. 그것은 부처님의 제자에 대한 현실적인 살핌이었다.

긍정적인 장애인관의 걸림돌이 되어온 업이지만 나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따로 보지 않는 불교의 장애인관, 불교의 모든 사상을 분리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장애인관이 필요할 것이다.

불교의 패러다임 속에 긍정적인 장애인관이 녹아들고 장애불자들이 설 자리가 바로 만들어지기를 서원한다.

社 說

'세계명상의 날'은 필요하다

21세기는 분명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번뇌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 전쟁 등을 통해 우리는 분명 전쟁이 벌어지면 공멸임을 알지만,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갈등과 분쟁을 이어간다.

현재 상황은 마치 '안수정등(岸樹井藤)'의 비유와 맞닿는다. 한 사내가 광야를 걷던 중 갑자기 코끼리가 쫓아왔다. 사내는 마침 옆에 있던 빈 우물과 나무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몸을 숨겼다. 헌데 우물 밑에는 독룡이 있어 다시 나가려 했는데 나무뿌리를 흰쥐와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었다. 그런데 나무뿌리에서 벌꿀이 흘러 입으로 들어왔고, 이와 중에도 사내를 이를 음미했다.

사방에서 멸망으로는 가는 징후가 옴에도 우리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물질적 이익과 쾌락에 몸을 맞기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명상'이다.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위해 10월 8~1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조계종 교류단이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바라는 한국불교계의 제안서를 UN에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길은 개인의 내면적 성찰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명상의 날' 제정을 정중하게 제안했다. 한국불교의 제안을 UN이 받아들여 세계명상의 날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환경오계 실천하는 '환경보살' 되자

불교환경연대는 10월 5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창립 23주년 기념 환경오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자들은 △천지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 생명임을 알고 존중해 모시는 삶 △경쟁·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닌 서로 살리는 삶 △많고 빠른 것보다 작고 적은 것을 추구하는 단순 소박한 삶 △깨끗함과 편리함이 분별임을 알고 적당히 불편하게 사는 삶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수행하며 나누는 삶 등의 '환경오계'를 수지했다.

계사스님들은 "환경오계는 인간의 욕망을 제도화한 산업사회에서 벌어지는 기후시스템 붕괴, 생물종 다양성 파괴로 인한 생물대멸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환경보살이 돼 파국으로 질주하는 사회를 돌려 뭇 생명이 함께 행복한 정토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여름은 현재 지구가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법화경〉에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가 있다. 직역하자면 '세상이 불타는 집'이라는 말이다.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삼독심(三毒心)에 그 원인이 있다. 불타는 집에서 나와야 함에도 탐욕에 취해 그대로 있는 것은 모두 공멸하는 행위다. 화택에서 탈출하는 것은 우리 모두 '환경보살'이 되는 것이다. 불자라면 환경오계를 수지하고 환경보살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0월 1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1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0월 1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